

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음식점 「재난희망보험」 상품 출시

 추진부서 | 안산시 위생정책과 ☎ 031-481-3975

개선배경



- 100㎡이상 음식점은 「재난안전법」 제76조의5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와 폭넓은 보장이 되는 '재난배상책임보험'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어,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덜어 주고 있음.
- 2021년에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2,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, 전국 음식점 85%인 약75만 개소(22년 8월 행정안전부) 소규모 음식점(100㎡미만)이 가입 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없는 상황으로, 저렴한 보험료와 화재 등 위험에 대비해야 할 보험상품이 필요

개선내용



개선 전

소규모(100㎡미만) 음식점은 「재난안전법」 제76조의5에 따라 재난희망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니라 사보험을 제외하고,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 등 타인의 생명·재산상의 손해배상에 대비 할 수 보험이 없었음.



개선 후

2023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실무편람 개정을 통해 소규모(100㎡미만) 음식점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'재난희망보험' 출시.
이에 저렴한 비용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예측 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한 대비가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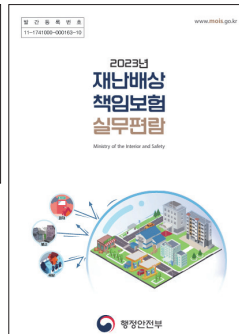
개정된 법령(지침)내용

재난희망보험(임의보험) 상품 출시(22.9.1)

-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100㎡ 미만 소규모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가입 가능한 별도 '선택보험' 상품 출시
-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보장 내용은 동일하나,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 가능

재난배상책임보험·재난희망보험 비교표			
구분	재난배상책임보험	재난희망보험	비고
가입 대상	100㎡ 이상	100㎡ 미만	
보장 내용	1인당 대인 1.5억, 1차고당 대물 10억	대인 1.5억, 대물 10억	화재·물고기·폭발
보험료	최저 2만원(부담)	약 2만원	

· 개별손해보험 단체 판매 상품



추진과정



- '21.2. 소방서 등 유관단체 · 기관 연계를 통한 음식점 화재 실태 조사
- '21.3. 소규모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출시 가능성 등 보험사와 협의
- 소액 보험료이면서 보장성이 커서 보험사에서 상품 판매 꺼림
- '21.9. 안산시 제도개선 과제 제출(전국 최초)
- 소규모 음식점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안
- '22.5. 중앙부처 협의 결과 '일부 수용'
- 소규모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보험상품 출시 검토
- '22.9. 소규모 음식점 재난희망보험 상품 출시
- 연 2만원으로 재난 피해보상이 가능한 보험상품 출시

개선효과



- 전국의 음식점 중 약 85%를 차지하는 소규모(100㎡미만)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감 완화 및 국민의 피해 보상 보장





소규모 음식점 재난희망보험 출시로 재난보장 ok !



 경기도 안산시 위생정책과 김애임 ☎ 031-481-3975

소규모 음식점(100㎡미만)은 매일 불을 사용하는 화재 취약시설임에도 가입가능한 재난배상보험이 없습니다. 반면 100㎡이상 음식점(25%)은 월 2만원의 저렴한 보험료와 대물 10억까지 보상해주는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있어 영업주의 피해배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.

이에 외식문화 증가,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이용률 높은 소규모 음식점(75%)이 가입 가능한 재난희망보험을 출시하도록 하였습니다. 영업주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까지 재난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 재난취약시설 사각지대를 해소시킨 사례라고 생각합니다.

이 상품은 보험사 측에는 저렴한 보험료에 비해 보장액이 커서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지만 많은 소상공인이 가입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